

조각, 공간에 쓰인 시 아니쉬 카푸어

October , 2016 | 김정아 기자

page 1 of 4

ARTIST 2



아니쉬 카푸어 작가. 사진: Keith Park

조각, 공간에 쓰인 시 아니쉬 카푸어

글 김정아 기자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국제갤러리는 8월 3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물질의 한계를 뛰어넘어 정신적인 형태를 다루어 온 현대미술의 거장 아니쉬 카푸어(Anish Kapoor, b.1954)의 개인전 《군집된 구름들(Gathering Clouds)》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재료의 물질적인 특성이 드러나는 비정형적인 형태의 근작 19점을 소개한다. 독립적으로는 기묘한 독특성을 지니면서도 각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는 《군집된 구름들(Gathering Clouds)》과 《비정형(Non-Object)》 시리즈는 작품의 재료와 형태를 능숙하게 다룬다. 이번 전시는 작가 특유의 이미지의 반사와 왜곡 그리고 전환을 통해 시공감각 이면의 영적이고 본질적인 접근을 탐구해온 카푸어의 세계관을 살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영국을 본거지로 활동하는 인도 출신 작가

카푸어는 1954년 인도 뭄바이(Mumbai)에서 인도계 힌두교 신자인 아버지와 이라크계 유대교 신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인도에서 교육을 받던 그는 실질적인 작업을 더 중요시 여겼던 아버지의 뜻에 따라 18살에 이스라엘로 넘어가 전자공학을 공부하게 되지만, 곧 그것이 자신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미술을 공부하기로 결심한다. 그리하여 1973년에 본격적인 공부를 위해 영국으로 이주했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국을 본거지로 국제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패트리스 알렉상드르(Patrice Alexandre) 갤러리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시작으로 1980년대 초부터 수차례의 전시를 거치며 다소 빠르게 업적을 쌓아나갔다. 1980년대에 그는 헨리 무어(Henri Moore)나 바바라 헵워스(Barbara Hepworth)의 후계자로 불리면서, '새로운 세대' 혹은 '젊은 영국 조각가'라는 수식어를 달고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카푸어는 조각은 독립적이고 난해하여 비참조적이고 본질적으로 추상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모더니즘에 대항하였으며, 순수한 형식주의나 미적인 질문들보다는 안과 밖, 남성과 여성, 표면과 내면, 정신과 물질 등과 같은 광범위한 이슈를 강조하면서 독자적인 예술관을 펼쳐나가고 있다.

비정형 오브제(Non-Object)의 거울 효과

물질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던 카푸어는 1990년대 중반부터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여 거울 효과를 일으키는 조각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스테인리스 스틸은 자신이 추구해왔던 비물질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적의 재료였다. 매끄러운 표면에 관람객을 포함한 주변의 공간이 반사됨으로써 조각은 '오브제가 아닌 오브제'로 기능하게 된다. 또한 그 거울은 오목하거나 볼록한 형태를 지님으로써 그 상(像)이 왜곡되고 반전되는데, 이는 두렵고 낯선 언캐니(uncanny)의 감정을 유발시킨다. 관람객은 일그러진 신체의 파편들을 제외하고는 스스로를 온전히 볼 수 없고, 안정적인 지각 체계의 우월한 위치에 선 관람객으로서 자신을 보는 것이 차단된다. 이로써 관람객은 단편적인 자기 인식의 단계가 자아의 자연적인 발달 단계를 지나며 오랜 시간 억압되는, 자크 라캉(Jacques Lacan)이 묘사한 거울 단계 이전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관람객의 신체를 끊임없이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이 비정형 오브제들은 그 표면 속에 포착된 이미지에 시선을 집중시킴으로써 작품의 재료가 지닌 본래의 물성을 망각하게 만든다. 카푸어는 조각의 표면에 비친 공간 안에서 "그것 고유의 장소"가 규정된다고 보고, 이는 "반사를 통해 어둠



애니쉬 카푸어, 《군집된 구름들(Gathering Clouds)》 설치 전경, 사진: Keith Park

ARTIST 2



아니쉬 카푸어, 트위스트(Twist) 연작 설치 전경, 사진: Keith Park

과 빛과 주변의 상황은 모두 응축되고, 일상적인 모습이 다른 양상으로 제시되어 새롭게 인식되는 이화(defamiliarization)작용을 촉발시킨다”고 언급했다.¹ 이처럼 카푸어의 거울 오브제들이 만들어 낸 가상의 공간은 자기-인식의 과정과 정체성의 형성에 대한 라캉의 개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나이가 오브제를 통해 그것을 바라보는 관람객의 고정된 시각과 선형적 지식을 해체시키고 새로운 시각 경험을 선사함으로써 그들 각자의 존재에 의문을 갖게 한다.

신작 '트위스트(Twist)' 연작의 운동 효과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신작 '트위스트' 연작은 스테인리스 강철로 가공된 조각 작품으로, 물체에 적용된 힘이 어떻게 절제된 형태의 움직임으로 전환되는지를 표현한다. 카푸어는 〈비정형(Non-Object)〉을 비롯한 트위스트 조각 연작을 통해 대상의 내적이고 기하학적 형식과 반사되는 표면을 결합함으로써 독해의 모호함뿐 아니라 작품 자체의 소멸이 일어나는 모호한 상태를 다룬다. 공간 속의 실체로서 이 '트위스트'들은 마치 고대의 수

학적 공식들 혹은 공학적 기념비들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이들은 하나의 단단한 스테인리스 철 덩어리를 불특정한 각도들을 통해 휘어지도록 하였고, 기하학적 형태 혹은 바로크적 알레고리로 잘 알려진 휘어진 운동성으로 표현되어 있다. 바로크의 건축가들이 적용한 급진적인 운동성과 기울어진 평면들을 포착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활용한 것이다.

카푸어의 작품들은 티끌 한 점 없이 매끈한 표면으로 미묘한 불안정성을 나타내며 보는 이로 하여금 무궁무진한 물질성과 친밀함을 느끼게 한다. 약 60cm에 달하는 열두 점의 트위스트 작품은 선반 위에 놓였고, 높이가 약 2.5미터에 달하는 대형 작품 세 점은 전시장 바닥에 설치되었다. 서로 다른 높낮이로 설치된 고요하면서도 강렬한 트위스트 작품들은 전시장 공간을 가득 채우고 관람객으로 하여금 마치 신성한 성지로 걸어 들어오는 듯한 색다른 인상을 느끼게 한다. 이처럼 카푸어의 근작에서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은 거울 표면과 그 휘어진, 빛의 반사에 착목해 지워지는 물질성, 본다는 것의 환각성과 상호교환성이다. 이쪽에서 저쪽의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쪽과 이쪽이 뒤섞이고



아니쉬 카푸어, 〈구름 문(Cloud Gate)〉, Stainless Steel, Diameter 10m, Kensington Gardens, 2010-2011
photo: Tim Mitchell, ©Anish Kapoor Image provide by Kukje Gallery, 2006

서로 지워가면서 마치 공간 전체가 되살아나는 것과 같은 효과는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에 준거해 말하자면 작가가 거기에 있는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 공간에 근육을 부여하는 것이다.

공간을 진동시키는 시적 울림

이번 개인전에는 트위스트 연작 외에도 4점의 〈군집된 구름들(Gathering Clouds)〉시리즈 작품이 전시된다. 카푸어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잘 알려진 〈하늘 거울(Sky Mirror)〉 작품과 마찬가지로 유리섬유로 제작된 오목한 형태의 디스크 작업이다. 검은색 안료로 칠해져 있어 더욱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이 작품들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심연을 떠올리게 하는데, 이 강렬하고도 시적인 형태들은 관객에게 작품의 표면과 깊이를 번갈아 살피도록 유도하면서 단순한 해석에 저항한다. 표면과 작품 내부의 기하학적인 형태 사이에서 능숙하게 균형을 유지하는 작가는 공간을 활용한 작품으로 자연스럽게 관람객의 의식에 접근하여 신체적·정신적 교감을 이끌어 낸다.

카푸어의 작업은 그 자체가 공간에 쓰인 시와 같다. 관람객

은 리듬을 더하는 운율이고, 작품과 관람객의 몸과 정신이 함께 함으로써 그의 시는 완성된다. 그의 시의 여운은 오브제와 오브제가 아닌 것 사이의 모호한 경계에서 울려 퍼진다. 따라서 그의 작업은 한 가지 개념으로 수렴시켜 정의하거나 한정하기 힘들다. 마치 우주가 여전히 우리에게 미답의 영역이듯이 그의 예술의 의미 역시 열려 있다. 카푸어는 그 열린 공간을 예술이 마땅히 지녀야 할 시정, 즉 신비로움과 사유로 채워지길 바라는 것이다. ▣

Rainer Crone and Alexandra Von Stosch, *To Darkness: Svayambh*, publishing (Munich), 2008을 최승규, 『아니쉬 카푸어의 조각의 신체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3, p.24에서 재인용.

아니쉬 카푸어는 1954년 인도 뭄바이에서 태어났으며 1973년 영국으로 이주, 혼시(Hornsey) 예술대학교와 첼시 대학교에서 조각을 전공하였다. 1990년 제44회 베니스비엔날레에 영국 대표 작가로 참여 '프리미오 두밀라(Premio Duemila)'를 수상하였고, 이듬해 '터너 프라이즈(Turner Prize)'를 수상하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2015년 베르사이유 궁전 정원에 대규모 설치 작품을 선보였고, 테이트모던 터바인홀의 대형 설치 작품 〈마르시아스(Marsyas)〉(2002)와 공공 설치 작품 〈구름 문(Cloud Gate)〉(2006)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